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태풍이 휩쓸고 간 들판이 행하니 할랑하다. 원래부터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만든 것이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 파괴력이 의외로 커서 오랫동안 생각을 같이 해 왔던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링링이 아니라 조국 이야기이다. 태풍의 눈은 자녀 교육과 재산 문제를 넘나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이 대학 입시제도 개혁으로 귀착된 듯하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싸운 사례가 주변에 허다하다.

이 태풍은 권력의 정당성을 도덕성에 의지하고 있던 정부와 여당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남 좌파'를 포함한 지지 기반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정치 차체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다. 보수 야당도 비수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한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중상류층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야당의 유력한 무기인 청문회 자체의 무용론을 확산시켰다. 더 큰 패배자는 국민들이었다. 자신들의 자화상을 미워하게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국내외적 도전과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은 흔들리는 한국 사회의 국제적 위상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의 회복, 정부 출범 시 약속했던 분권과 협치. 이런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면 무엇 때문인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한일 갈등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중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남은 2년 반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이 좀 더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의 제도화를 화려하게 연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속이 거의 없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아득하다. 결단의 기회를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필자는 정상회담을 통한 위로부터의 해결이라는 틀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을바람이 불면 서, 북의 최섉희 부상은 북미 대화 재개 신호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이에 화답하는 자세를 취했다. 일본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위한 장애물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후로 다가온 평양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의 키를 다시 쥐려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힘과 옆으로 확산되는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결단할 수 있다.

조국 태풍이 보여 준 공정성에 대한 범사회적 요구는 대단한 것이었다. 문제는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기회의 공정성을 말하고 일부에서는 능

력에 따른 분배의 공정성을 말한다. 우리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주목하게 된 대학 입시 공정성 문제의 원천은 입시제도 자체보다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서열 구조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대학 구조 개혁과 학문 정책에 손을 놓아 버렸다. 교육 개혁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의 육성과 연구중심대학 학부의 완전한 지역균형 선발도 한 가지 방안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국 정치는 갈수록 원천의 악순환에 빠져들어 가는 듯하다. 촛불 혁명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분권과 협치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2년 반 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장관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권력이 예전처럼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생각하며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내가 태어난 곳은 빛고을이 아니다. 그렇지만 토박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오랫동안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다녔고, 공부한답시고 잠시 서울에 간 적은 있으나 지금도 이곳에 터를 잡고 있다. 한 사람을 만나 연애와 결혼도 여기서 하고, 내 아이들의 고향도 광주이다. 내게 광주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며, 앞으로도 살아야 할 곳이다.

직업병 탓인지 자연스레 광주의 거리와 역사를 뒤적여 본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요즘 광주가 이래저래 무척 바쁘다. 바쁜 게 좋은 일이었으나 솔직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바빠진 광주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무척 걱정된다.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싶다.

얼마 전 일이 있어 어릴 적 살던 곳을 버스 안에서 보며 지나왔다. 어릴 때부터 한동안 살던 곳은 광주천이 흐르는 광천동으로, 무등경기장 건너편이다. 여름 날 저녁마다 수양버들 아래 놓인 어느 집 평상에 앉아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해태 타이거즈 경기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여름 장마가 끝난 뒤 어린 아이 키보다 훨씬 자라버린 집꼴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베기도 했다. 그 위에서 아이들은 죽 구와 야구, 천연 눈썰매,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을 하며 자랐다.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때 가을 소풍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1979년 10월 27일이었다. 결국 선생님들의 회의 끝에 소풍을 가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고른 곳이 집 앞 다리 밑이었다. 그곳으로 소풍 가서 김밥과 사이다, 과자를 먹먹는 것으로 소풍날을 마쳤다. 어린 기억으로도 허탈했다.

다음해 5월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에 가지 않아요 된다는 연락이 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 초등학교생에게 학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었다. 난 데없이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목이 터

져라 애국가를 부르며 버스 타고 다녔다. 어느 날인가 전남도청 앞에 다녀온 옆집 아주머니는 이웃들에게 앞으로 방위 성금을 내지 말자고 선동하였다. 5·18항쟁의 마지막 날에는 집의 제일 안쪽 방에 우리 가족과 고모네 식구들이 모여 숨이불을 두르고 라디오에 귀를 쫓긋 세웠다. 총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우리 집 담벼락에도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렵פות이 날이 밝아 왔다. 그리고 집 부근의 다리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보였다. 며칠 뒤 다시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잔인했던 5월은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있던 그 공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잡풀 우거진 천원은 어느새 잘 닦인 공간으로 변했다. 40년이 지난 단독 주택을 남겨둘 필요가 없었고 잡풀은 걷어내야 하겠지만, 어릴 적 지나온 흔적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며칠 전 그 앞을 버스 타고 지나며 들었던 생각이 광주의 시가지에 미치지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즘 들어 광주의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공기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걸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행병처럼 빈

공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창의성을 말하기는 민망할 만큼 그 웅장함에 압도된다. 내부 시설이아 첨단 기술이 들어가 넘치도록 편리하겠으나 딱 거기까지이다. 사람들이 들어 있는 공간임에도 사람들을 압도한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비친다. 그 건물과 둘러싼 공간에 담긴 여제가 사라진 채로 커다란 벽이 세워진 느낌이다. 우뚝 솟은 건물이 광주의 하늘, 조망을 가리고 있다. 예전에는 보였어야 할 하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회색빛 건물이 대신한다. 광주가 어느새 '개방 도시'가 됐다는 어느 분의 한탄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불어 광주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빛고을 하면 양림동 근대 역사 마을과 5·18민주화운동만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딱 거기까지다. 건물을 높게 짓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듯싶다. 개발의 논리 속에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사라진 계남은 건물과 공간뿐일까?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예사롭지도 마냥 기쁘지도 않다.

社說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불발 정쟁 언제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에 휩싸인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 연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결합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꼬박 꼬박 챙기는 국회의원의 몸집치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올 정기국회는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생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

국 조국 장관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앞서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30%를 겨우 넘어 역대 최저다. "국회도 일 좀 하라"는 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합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꼬박 꼬박 챙기는 국회의원의 몸집치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올 정기국회는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생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

가정 폭력 피해 다문화 여성 보호 대책을

광주·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늘면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폭력 발생이나 그로 인한 검거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문화 가정 내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광주 68건, 전남 20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993건에 달했는데, 전남은 경기(1736건), 서울(71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 시도별 다문화 가구 대비 가정 폭력 발생률은 경기가 0.67%(9만 9008가구, 666건)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0.45%(6836가구, 31건)로 강원과 함께 공동 2위, 전남은 0.4%(1만3342가구, 54건)로 4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다문화 가정 내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 2014년 132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5년 새 9.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 장애, 한국 남성의 거부감적 역할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가정 폭력은 다문화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이주 여성의 나라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된다.

따라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로 먼저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이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마지막 정기국회도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국회는 여야의 일정 합의 실패로 당분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졸졸이 미뤄져 다. 일정 합의가 이뤄져 다음 주 대정부질문은 계획대로 열린다면 조국 장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각종 현안들을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연계, 날선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의 임명 및 진퇴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연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합의,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 3막’

이후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언급한 바

서 여야의 정쟁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민생법안 처리는 표류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곁들면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석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등 대러간 위기. 국회 각 상임위에서도 조 장관의 임명 및 진퇴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연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합의,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언급한 바

청춘 특·특

‘디지털 디톡스’ 시작해 볼까

25억 개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스타그램러블'(Instagramable)라는 단어도 주목받고 있다. 인스타그램러블이란 '인스타그램'과 영어단어 'able'(-할 수 있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다고 하기 보다는 휴대폰을 들고 음식 사진 찍기 바쁘며 찍고 난 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준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은 '소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남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 연출하고 왜곡하는 과시 수단이 되고 있다.

나 또한 인스타그램의 '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내 활동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면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나온다. '내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이 3시간이라는 기록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인스타그램 중독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내 생각과 일상이 사람들의 '좋아요' 수에 일상이 좌우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인스타그램러블'이란 신조어가 생겼듯이 세간에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말도 떠오르고 있다. 디톡스(detox)는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란 디지털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에 대한 처방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단식이나 디지털 금식이 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나는 내 시간과 감정을 인스타그램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인스타그램 디톡스'에 돌입했다. 인스타그램 앱을 단순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인스타그램 사용 중단에 실패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고 싶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마다 찾던 인스타그램이 없어지니 일상이 불안해

졌다. 갑자기 차단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이유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인스타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했다.

이후 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끼리만 소통하는 등 차근차근 사용 시간을 줄여 나가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좋아요' 수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지금 나의 인스타그램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안팎이다.

요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나처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중독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왜 SNS를 하고 있는지 질문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보여주지 싶은 연출이나 현실성 없는 게시물 업로드를 지양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제안한다. 불필요한 SNS 사용이 줄면 평소 시간에 쫓기듯 살아왔던 나날에도 여유가 찾아올 것이다. SNS에서 멀어져 시간이 난다면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활동과 행동을 탐구하고 재발견해 보자.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